

“혁신기구 즉각 구성·지도부 사퇴하라”

민주 비주류 “답변 없으면 ‘비상한 행동’할 것” 지역 국회의원 쇄신연대 발족식 참여 여부 관심

민주당 비주류가 28일 당내 혁신기구의 즉각 구성과 7·28 재보선 직후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정세균 대표 등 당내 주류 세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다음달 4일 개최되는 비주류 연합체 성격인 쇄신연대 발족식과 당원행동대회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비주류의 공세를 맞서는 한편 물 밑으로는 당내 세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주류 측 핵심 인사는 “당내 갈등을 조장하고 적전 분열하는 모습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전당대회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

으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쇄신연대 발족식 및 당원행동대회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이 민주당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차기 전당대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당권 도전을 선언한 박주선 최고위원을 필두로 김영진, 김재균, 주승용, 유우근 의원 등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도 성향의 김효석, 이낙연, 최인기, 김영

록, 이윤석, 조영택 의원 가운데 일부도 참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하며 당내 주류와 각을 세우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쇄신연대 발족식에 대거 참석한다면 차기 전당대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현 지도부 및 주류 세력에 대한 지역 민심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이군현(오른쪽),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의 표결처리 합의 등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수정안’ 오늘 표결... 부결될 듯

여야 합의... 대북규탄 결의안·‘스폰서 검사’ 특검법도

집시법 처리 사실상 무산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회담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대북규탄 결의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은 양측간 이견이 큰 만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 직후 “내일 본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법, 세종시 수정안, 대북규탄 결의안 등 4개 결의안, 법사위 의결 법안 등의 순서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계 임동규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을 본회의의 표결에 부지기 위해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은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의석분포로 볼 때,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번 국회에서의 마찬가지로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291명의 재

적의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이중 과반수(146표)가 찬성해야 하는데 친이계 90~100표와 일부 중도파를 제외한 나머지가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대북규탄 결의안의 경우 한나라당의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을 동시에 올려 표결키로 했으며, 한나라당 원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시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한 만큼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것으로 관측된다.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달 1일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게 된다. 이와 함께 양당은 민주당의 요구로 7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권은 출판기념회 시즌

여야 전대주자들이 잇따라 개최 정치 자금·세과시 수단 활용

‘전당대회 시즌’을 맞아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각각 내달 14일과 8월말로 예정됨에 따라 여야 주자들이 출마를 공식화하고 선거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마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는 것.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8일 영등포 공군회관에서 저서 ‘변방’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화합과 쇄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제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 의원 측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금이나 세력을 모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특히, 더운 여름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어 출판기념회 취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전대 출마를 선언한 영광 출신의

한나라당 친박계 이성현 의원은 다음달 2일 국회도서관에서 저서 ‘어떻게, 계속 할까요?’ 출판기념회를 연다.

광주와 전남지역 대표 주자로 당권 도전에 나서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김효석 의원은 다음달 중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주류를 대변하며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8월초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지난 5월 출간했으나 6·2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갖지 못한 ‘트위터는 막걸리다’ 출판기념회 개최 여부를 고심 중이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제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 의원 측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금이나 세력을 모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특히, 더운 여름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어 출판기념회 취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舍大 너도나도 출마 12명 출사표... 레이스 본격화

한나라당 7·14 전당대회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이자 재선의 이성현, 한선교 의원, 소장개혁의 대표주자인 조선의 김성식 의원이 28일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권 주자만 총 12명이 된다.

내달 1일 대의원 명부가 확정되면 후보들의 당심(黨心) 잡기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현재까지 친이(친이명박)계에서는 4선의 안상수 홍준표 전 원내대표, 재선의 정두언 의원, 김대식 전 민주당 사무처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당내 일각에선 이들 친이 주자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범친이계인 홍준표 전 원내대표, 호남 지분이 있는 김대식 전 평통 사무처장의 출마로 친이계 표의 분산 가능성을 컸기 때문이다.

우선 계파 색채가 뚜렷한 ‘안상수-정두언 연대’의 가시화가 점쳐지는데 양측의 의사타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 홍 전 원내대표는 함께 활동했던 원내부대표들을 중심으로 선거캠프를 꾸리고 있고, 정 의원은 친이 내 소계과 대표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진용 갖추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본선에 앞서 내부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다만, 친박 중진 의원 9명은 이날 조찬회동을 갖고 후보 조율에 나섰다.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소장개혁파이자 중립그룹으로 분류되는 4선의 남경필 의원과 재선의 나경원 의원, 조선의 김성식 의원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정한 세(勢)를 형성하고 있다.

공무원

1차: 6월 22일 오후 3시~ 2차: 6월 26일 오후 3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강료도 할인 받아 합격하자!

특별이벤트
(수강료할인)

- ▶ 1차: 수험생 2명 이상 수강 시 10% 할인
- ▶ 2차: 수험생 2명 이상 수강 시 10% 할인
- ▶ 3차: 수험생 2명 이상 수강 시 10% 할인
- ▶ 4차: 수험생 2명 이상 수강 시 10% 할인
- ▶ 5차: 수험생 2명 이상 수강 시 10% 할인

특별이벤트2
합격생 4명 이상 무료 수강료 지원

개강 7월 1일

외사역이 되는 특강반 선배!

PEET/ MEET/ DEET

외사역이 되는 특강반 선배!

중등예상
문제풀이

기초이론반
외사역이 되는 특강반 선배!

토익/토플
외사역이 되는 특강반 선배!

개강 7월 5일